

해방 전 · 후 월남 개신교 정치인, 김병연의 애국 · 애족운동 연구

A Study on a Patriotic Movement of Kim, Byung-Yeon, a Wolnam Protestant Politician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정교진 (Kyo Jin Jung)*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Kim, Byung-Yeon who was the closest staff and right-hand man of Cho, Man-Sik who was the one of Protestant politicians among those who fled to South Korea in the area of Liberation. The academic valu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is is to study people who have simultaneously worked on the ideas and methods of two representative leaders(Ahn, Chang-ho and Cho, Man-Sik) who differed in their ways in the national movement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around the time of liberation. In the fact that Dr. Kim, Byung-Yeon had succeeded two leaders whose way of the patriotism movement were different, and had reached the point of coexistence in the national movement, this research would be meaningful, and it can present another solution for understanding the national movement around the time of liberation.

Secondly,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es have described that the Protestants politicians who came from the North are the strong anti-communists and also the very subject group who have fixed the divis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and at the same time, the people of pro-American and pro-Rhee, Seung-Man, so that they favored the politics. However, when I examined Dr. Kim, Byung-Yeon carefully, it is right to say he was a strong anti-communist, but he was not a pro-American or a pro-Rhee. Kim, Byung-Yeon expressed his moderate stance on US-ROK relations and mentioned both of USA and Soviet are responsible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even though he served as a deputy secretary general in the early government of Rhee, Seung-Ma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Seoul National University -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2층, ezekiel21@snu.ac.kr

2018년 10월 25일 접수, 12월 12일 최종수정, 12월 17일 게재확정

and served as a governor of PyongAn Province for five years, he did not hesitate to point out the wrong doings from the government of Rhee.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 necessity to reconsider the existing evaluation about Protestant politicians who came from the North.

Thirdly, the view of Kim, Byeong-Yeon abou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gives us many lessons for this age. He called for unific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beyond autonomous unification, and insisted on the legitimacy of unification in terms of 'justice' and 'truth'. In addition, he emphasized the accumulation of power through internal solidarity as the first task of unification. Thus, Kim, Byung-Yeon's unification view suggests the right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unification discourse in this era.

Key Words : wolnam protestant politician, a Patriotic Movement, anti-communism, the view on national unification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들어가며

해방정국의 월남인 및 월남 개신교인들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진행된 편이다 (강인철, 1993; 송영준, 1993; 박명선, 1983; 조형, 박명선 1985; 김귀옥, 1999; 김정숙, 2007; 김현정, 2010). 반면, 해방정국 월남 개신교 정치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단지, 당사자 회고록, 해당 인물 기념회, 동지회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회인물편찬회 등에서 발간한 자료집에서 관련인물에 대해 일부분 소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박명수의 월남 개신교 정치인 이윤영(조선민주당, 부당수)에 관한 인물연구는 주목할 만하다(박명수, 2017).

이윤영을 비롯한 다수의 월남개신교 정치인들은 조만식이 이끈 「평남건국준비위원회」위원으로 참여했었던 인물들로 개신교 인사들 중 대략 12명이 월남하였다(박명수, 2015). 그 명단은 최능진(치안부장), 한재덕(선전부장), 홍정모(산업부장), 이종현(생활부장), 이윤영(지방부장), 정기수(외교부장), 김병연(무임소), 한근조(무임소, 법조계), 김익진(무임소, 법조계), 박현숙(여성부장), 김동원(무임소, 민족주의), 노진설(무임소, 법조계) 등이다. 이들 중, 조만식이 1945년 11월 3일, 평양에서 창당한 「조선민주당」에서도 정치 활동했던 인사는 이윤영(민족주의 진영 부당수), 이종현, 김병연, 한근조, 김익

진, 박현숙 등으로 조선민주당의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이었다. 이들은 월남한 이후, 남한에서도 정치인으로 활동을 한다. 기존연구들이 비평하듯 정치에 편승한 정치 주변인들이 아니라 주요정치인들로서 해방정국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월남 개신교 정치인들의 정치적 역할 및 그 기여도에 대해 현재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이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작년에 박명수의 이윤영 연구가 유일하다 하겠다. 조만식의 대리인으로 남한에서 핵심 정치인이었던 이윤영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월남 개신교 정치인들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치적 역할이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정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남북분단 상황에서 이들의 정치활동 및 통일관이 대북정책에 있어 어떤 순기능적 역할을 했는지 조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바른 통일관을 관철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만식의 평남 건준에서 무임소장관으로, 조선민주당에서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조만식의 최측근이자, 월남 이후 이승만 초기정부에서 주요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김병연 선생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우선, 월남 이전 북한지역에서 그의 정치활동 배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남한에서의 정치참여 과정 및 주요한 정치적 행보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은 김병연 선생이 남긴 글(기고문)을 통해 그의 민족정신 및 대북관, 통일관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으로, 그의 애국애족운동의 함의를 도출함으로 이 시대 평화·통일 담론을 구축하는데 있어 그 적용점을 모색해 볼 것이다.

II. 월남이전, 북한지역에서의 정치활동

1. 기독교 성장배경 및 민족운동

1896년 2월 25일에 평양에서 출생한 김병연(金炳淵, 호: 운하(云何))은 그가 9세 때 후모(後母) 임씨를 통해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임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김병연의 인격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김병연은 14세(결혼)에 신문을 배우기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대성학교에 입학하

였으나¹⁾ 한일합방 직후 학교가 폐교되자 서울로 상경하여 보성학교로 전학했다. 이 당시 그는 애국청년들과 교제하며 민족의식을 싹 틔웠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안되어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병연은 후모의 권고로 교회활동에 매진하였다. 그는 채관리교회 집사가 되었고 교회 유년주일학교 교장, 엽윳청년회에서 활동하여 교회대표로 감리교 연회에 참석하는 등 기독교 정신이 충만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 특히 웅변에 뛰어나 빠른 시일에 평양 사회에 새로운 젊은 인재로 부각되었다. 김병연의 정규 교육은 대성 학교와 보성학교가 전부이다. 반면, 그는 14세까지 한문을 배워서 사서를 통달하였다. 또한, 신학문에 대한 갈증으로 독학하면서 일본어를 비롯한 수학, 사학, 정치, 경제 등에 상당한 조예가 깊었다.

김병연으로 하여금 애국지사의 길을 가도록 큰 영향을 준 이들은 구한말 군인 출신의 투사 도인권과 감리교 초기에 선각자의 사상과 행동을 보여 준 주기원 목사다. 이들의 영향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김병연은 앞에서 대열을 이끌었다.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에 세 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김병연은 한성정부를 지지하며 철혈청년단에서 활동하였다. 청년단에서 각종 인쇄물을 배포하다 발각되어 1919년 8월에 평양감옥에 제1차 투옥된다. 당시 24세였던 그는 여기서 고당 조만식과 이윤영을 만나게 된다.²⁾ 그는 이윤영과 같은 감방에 투옥되어 그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영적지도를 받았다. 김병연이 제2차 투옥된 시기는 1923년 7월이다. 그는 당시 홍범도가 이끄는 간도군관학교와 연락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훈련받을 군관생도를 추천 파견했다는 혐의로 투옥되었다. 만주지역에서 일본군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등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자 그 보복으로 1923년 10월부터 약 10만여 명의 한국인을 학살하였다.

1920년대 초반부터 독립운동 방식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전투의 투쟁 방식만이

1) 이것이 훗날 대성학교 설립자 안창호와의 깊은 인연으로 발전되었고 도산은 그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또한 도산이 이끄는 동우회사건에 연루되어 도산과 함께 상당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된다(김내영, 2011: 46).

2) 조만식은 도인권과 함께 상해로 망명하다가 강동군 열파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평양에 압송된 뒤 보안법위반으로 1년간 복역 중이었다. 이윤영은 당시 감리교 목사로서 순천군 신창읍에서 목회를 했으며 신창읍 독립시위 운동을 주도, 면장, 의사, 교원, 금융조합원 등 전 기관이 궐기했으므로 규모도 컸고 피검자도 많아서 30여명이나 평양감옥에 끌려와 있었다. 당시, 구속자가 많아서 교회당을 이용해서 2, 3백 명씩 집단수용을 하고 있었다.

아닌 국민계몽과 민족문화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여 실력배양으로 독립할 수 있는 민족의 역량을 축적하자는 경향이 짙어졌다. 당시, 김병연도 민족성 개조와 민족 역량 향상으로 민족의 영구한 독립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산 안창호가 주창한 흥사단운동(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에 참여하고 있었다.

간도 군관학교사건으로 6개월여의 옥살이를 치른 후에 김병연(당시 27세)은 조만식(총무)이 이끄는 평양 YMCA에서 유급 서기직으로 일하게 된다. 이때부터 김병연은 사회단체 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김동원, 조만식과 같은 평양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YMCA로부터 출발한 고당 조만식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조만식이 회장을 맡은 단체들 즉, 조선민립대학 기성회(1922), 조선물산장려회(1920), 관서체육회(1930, 조만식 1931년에 회장취임), 을지문덕 장군묘수보회(1936), 장감연합, 저축조합, 신간회지회(1927, 조만식 평양지회장, 김병연은 상임간사), 평양상공협회(1928) 등에서 김병연은 총무, 이사급의 위치를 맡았다. 김병연은 1921년 평양기독교청년회에 회우부 이사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업무처리 능력과 언변, 뛰어난 사교성으로 <시대일보>³⁾를 비롯한 언론계에도 진출하게 되었다. 1932년 9월에는 조만식의 권유로 경성의 <조선일보> 본사 이사에 취임하였다. 당시, 조선일보를 조만식이 인수하여 사장이 되었으므로 그는 조만식의 부름을 받고 함께 상경하여 조선일보 신문경영 실무를 맡아 보았다. 하지만 1년도 못되어 방응모에게 판권을 넘기고 두 사람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방응모의 요청에 의해 김병연은 평양지국장직을 수행하였다. 1937년 6월에 동우회사건⁴⁾으로 검거, 투옥되기까지 약 4년 동안 일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김동원 장로가 사장으로 있는 고무공업을 하는 평안상공주식회

3) <시대일보>는 육당 최남선이 1924년에 판권을 얻어서 창간한 신간이었다. 얼마 후 이상협의 인수로 <중외일보>로 개칭했다. 김병연은 시대일보 평양지국 총무 일을 보았다. 1926년 12월 중외일보로 개칭되고 평양지국장으로 발령받았다.

4) 1937년 당시,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한민족을 소위 황국신민화하려는 정책인 내선일체운동을 시작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동시에 한국어사용을 제한, 금지하고 한국어로 된 민간신문들을 폐간시켰다. 그리고 국내의 좌익세력을 먼저 총검거해서 투옥한 후에 민족주의 진영 말살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이때 동우회도 해산압박을 받았다. 당시 조만식이 이끌던 조선물산장려회, 관서체육회 등도 자진해산하였다. 일제는 6월 6일을 기하여 동우회 간부(이광수의 9명)들을 검거하고 전국적으로는 150여 명을 검거했다. 평양에 있던 회원들은 6월 28일에 안창호와 함께 전원 검거되었다.

사에서 지배인(1942년 5월)으로 일했다. 김동원과 김병연은 동우회 전신인 평양 동우 구락부 발기 동지이자 평양 YMCA에서 함께 활동하였었다. 김병연은 지배인으로 생활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1일 그를 강제연행 했다. 헌병대 유치장에서 수감되어 있던 그는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다음날인 8월 16일에서야 풀려났다.

2. 김병연의 정치입문 및 그 주요활동

(1) ‘조선건국 평안남도 준비위원회’ 참여

해방 다음날, 석방된 김병연은 조만식을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정치활동이었던 ‘조선건국 평안남도 준비위원회’(이하, 평남 건준)에 참여했다.⁵⁾ 조만식은 평남 건준의 조직 편성을 김병연과 이주연에게 맡겼다. 이 두 사람의 기초 작업위에 다른 준비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17일 오후 2시에 평남 건준이 조직되었다. 위원장에는 조만식이, 부위원장은 오윤선, 총무부장은 이주연, 치안부장에 최능진, 선전부장에 한재덕, 교육부장에 홍기주, 산업부장 홍정모, 재정부장 박승환, 생활부장 이종현, 지방부장 이윤영, 외교부장 정기수, 무임소(민족주의) 김병연, 무임소(법조계) 한근조, 무임소(법조계) 김익진, 무임소(천주교) 김필현, 무임소(유림) 지창규, 여성부장 박현숙, 무임소(의학) 김병서, 무임소(민족주의) 김동원, 무임소(법조계) 노진설, 무임소 김광진 등, 총 21명이었다.⁶⁾

5)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한 후, 평안남도 지사 후루카와는 평양지역의 행정이 마비상태에 이를 것을 우려하여 조만식에게 행정을 인수하도록 간청했다(박명수, 2015: 32).; 당시 소련보고서(현재 조선에 존재하는 적대 정당들에 대한 설명서) 및 소련문서(1945년 당시 북조선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묘사하는 문서)에는 8월 13일에 평안남도 지사 후루카와 가네히데는 아베 총독에게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설립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후루카와 도지사는 도청부장들, 도 경찰서장 그리고 특별고등경찰서장이 참가한 특별회의를 소집해, 평안남도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17일에 아베총독은 후루카와 도지사에게 ‘조만식이 준비위원회에 참가하도록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참가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은 조만식에게 이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제안하는 것이었다(표도르 켄트치츠키, 2018: 65).

6) 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평남 건준이 개신교인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타 종교인(김필현, 지창규)들도 참여했으며, 사회주의자(이주연, 한재덕, 김광진)들도 포함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처럼, 평남 건준은 민족주의자의 주도 아래 좌익인사를 포함시켰다. 이는 건준이 비록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지만 좌

또한, 후에 각계각층을 넓게 규합한 기구로 확대하기 위하여 따로 참여제를 두었다. 즉, 중견인사 70여명을 참여인사로 위촉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었다. 70여 명의 참여인사들 인선은 주로 김병연이 맡아서 했는데, 그가 오랜 사회 활동과 언론계 종사로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덕망 높은 인사들과 지식층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인사들의 회의 주제, 활동 등 그들에 관한 일도 김병연이 전담하였다.

건준이 평안남도 지사 후루카와의 간청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정작 설립 후에는 일본 정부의 지시가 없다고 하면서 행정과 치안의 권한을 이양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건준은 정권적 차원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만, 가두 치안을 돌보며 선전활동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이 군정을 실시하고 신 정권조직인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였다. 조만식의 건준은 수립된 지 불과 10일간의 짧은 시간 활동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소련군 총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의 중재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평남 건준과 현준혁의 조선공산당 평남도당이 좌우합작 방식의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⁷⁾ 조만식 위원장과 인민정치위원들은 8월 27일 오전 11시부터 당시 만수대 위에 있던 평남도청을 방문하여 일본인 지사 후루카와를 만나 행정권 이양서에 서명을 받았다. 오후에는 각종 행정기관을 접수하였다.

김병연은 도 재무위원에 임명되었기에 도 재무부와 그 밑의 세무서, 전매국 등을 인계받아 부서를 개편하고 부내 인사발령을 했다.⁸⁾ 일정시대의 관리들이었지만 악질본

익을 포함하여 범민족적인 성격을 갖기를 원했던 조만식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평남 건준의 주요 위원들은 일제 강점기에 실력양성론자들로서 온전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민회, 3·1운동, 조선물산장려운동, 신간회, 수양동우회사건, 등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렀었다(박명수, 2015: 34-36).

7) 소련 문서를 보면 당시, 우익조직 중 이명(李命)이 지도하는 ‘민족사회당’은 상당한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132명의 당원과 평안남도 9개 군에 지부를 두고 있었고 반공 활동에 역점을 두었는데, 소련군에 의해 친파시스트적이란 이유로 강제해산 조치를 당했다. 같은 맥락에서 모든 정당, 사회조직에 대한 등록이 실시되었고 친일조직으로 보이는 단체들은 강제해산을 당했다(기광서, 2005: 5).

8) 김병연은 도 재무부장으로 재임하던 중 소련군정이 설치한 북조선 5도행정국(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전신)에서도 재무부 국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북조선 각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인민위원회의가 조직되었다. 소련군은 이를 기초로 전국적 연합체제를 만들기 위해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북조선 5도회의를 소집했다. 북조선 지역에서 따로 행정조직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으나 억압되었으며 대회가 끝난 뒤 11월 19일 5도행정국이 수립되었다(와다 하루끼, 남기정, 2014: 51).

자만 정리하고 대부분의 관리들은 유임시켰다. 이 방침은 조만식이 8월 27일 평양도정을 인수받으면서 “신정권에 충성을 바치는 자 계속 유임시킨다”라는 훈시를 통해 공약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산당측은 김병연의 재무부는 일제 잔재물의 쓰레기통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업무에 있어서 공산당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이같은 사상적, 정책적 알력은 1946년 1월 5일에 열린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대두된 한반도 신탁통치결의 문제로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2) ‘조선민주당’ 활동

조선민주당 창당의 직접 동기는 처음부터 자주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소련군정은 당시, 모스크바로부터 아직은 공산당원을 정권의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민주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내세우라는 지령을 받았다.⁹⁾ 그래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정당 창설을 고려하고 있었다. 처음에 조만식은 신당 창당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 당을 창당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소련의 전략에 앞장 선 인물이 바로 김일성이다. 그의 통일전선전술은 결국 조만식의 마음을 움직여 조선민주당이 창당되게 되었다(김준엽 외, 1973; 한근조, 1979; 김국후, 2008; 박명수, 2015). 조만식은 자신의 입장을 소련과 공산당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중간자가 필요했고 김일성을 적임자로 보았기에 10월 14일 김일성환영대회에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조선민주당은 11월 3일 평양에서 105인 발기인 이름으로 창당하여 33인의 중앙상무집행위원을 선출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만식(당수), 이윤영(부당수), 최용건

9) 이것이 스탈린이 1945년 9월20일자로 하달한 7가지 ‘훈령’이다. 그 중, 1)북조선 영토에 소비에트 및 여타의 소비에트 권력기관을 창설하거나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하지 말 것. 2)모든 반일민주정당 및 조직들의 광범위한 연합을 기반으로 북조선에 부르주아민주주의 권력수립을 방조할 것이 있다. 해방 직후 상당수 공산주의자들은 ‘주류세력’이 제기한 조선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무시하고 소비에트 질서를 모방하거나 사회주의로의 즉각적인 이행을 주장하였다. 이들 극좌세력은 평양과 함흥 등지에서 즉각적인 소비에트 권력 수립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한 무장부대를 조직하고 여러 시설물을 점수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군측은 ‘일련의 오류’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이같은 행동을 적극 저지하고 나섰다(기광서, 2005: 6); 이 문서는 1993년 2월 26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에서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명령한 최초의 기밀문서가 50년 만에 완전 공개됐다고 모스크바 발표를 보도하며 한국에 알려졌다(<동아일보> 1993년 2월 26일자; 양준석, 2017: 119; 표도르 켈르치츠키, 2018: 85).

(부당수), 오윤선, 이종현, 김병연, 우제순, 김익진, 백남홍, 김책, 조종완, 홍기환, 정인숙, 박현숙, 한여사, 오영진, 김규환, 이계환, 윤무준, 박재창, 박승환, 이호빈, 윤장엽, 전영택, 홍기주, 차재익, 전준삼, 박선권, 김병조, 조명식, 고몽헌, 2명 불명, 이들 중 평남 건준의 위원이 조만식을 비롯해서 오윤선, 이윤영, 김병연, 김익진, 박현숙, 홍기주 등 일곱 명이 된다(김창순, 1990: 244).

조만식을 비롯한 김병연과 민족진영의 동지들은 조선민주당을 북한 지역만의 조직체가 되지 않기를 원했다. 남북분단의 상태를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또는 분단의 환경이 굳어지도록 영향을 주는 행동은 일체 삼가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출발하였다. 창당 후 3개월 동안에 당세는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전 북한의 도, 시, 군, 면에 각급 지구당부가 조직되고 당원수가 50만에 달하는 거대정당이 되었다. 당의 급속한 세력 확산에 위기감을 느낀 김일성 세력은 각처에서 조선민주당 지부를 습격하여 당원들을 폭행하고 죄명을 날조하여 검거, 투옥시키는 야비한 행동들을 일삼았다. 결정적으로, 한반도의 신탁통치안에 대해 반탁과 찬탁으로 양분되어 조선민주당 연립, 합작관계가 파행되었고 이후, 완전한 적대적 관계가 되어 버렸다.

Ⅲ. 월남과 그 후, 정치활동 및 재야운동 주요행보

1. 월남의 주요배경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 신탁통치안이 가결되자, 남북한에서 좌우 진영 구별 없이 거족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며칠 못가서 소련의 지령으로 공산당측¹⁰⁾은 반탁운동을 중지하고 찬탁으로 돌아섰다.¹¹⁾ 뿐만 아니라, 반탁운동

10) 북조선의 공산주의 조직은 조선공산당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연안과 간부들에 의해 조직된 '조선신민당'도 있었다. 김두봉을 비롯한 연안파 간부들은 1945년 12월 귀국 이후, 기존의 명성을 바탕으로 김두봉을 주석으로 하는 조선독립동맹회를 결성하였다.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결성 직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하였다. 얼마후 김두봉은 동맹회를 기반으로 신민당을 설립하여 위원장직을 연임하였고 최창익과 한민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1946년 2월 15일 신민당이 출범할 때 당원은 11,000명 정도였고 반년 후에는 9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조선신민당은 공산당과 같이 모

세력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조만식에게도 김일성을 통해 끝까지 설득하고 위협을 했지만 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은 끝까지 반탁을 굽히지 않았다.

1946년 1월 5일,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가 신탁통치에 대한 중대결의를 하려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총 위원 32명중, 공산당 측은 전원 출석한데 반해, 민족진영은 절반 정도가 결원했는데 이는 이미 많은 이들이 월남했기 때문이다.¹²⁾ 이주연을 비롯한 공산당 위원들이 신탁지지를 재촉하며 표결에 붙이자고 할 때, 조만식과 김병연은 충분한 토의 없이 졸속표결은 안된다고 맞섰다. 조만식의 반탁의지를 확인한 소련군정은 그에게 위원장직을 사임할 것을 강요했고 그는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¹³⁾ 소련군정은 조만식이 회의장을 나오는 즉시 고려호텔에 감금시켜 버렸다. 오랫동안 조만식의 그림자처럼 공사를 함께해온 김병연은 매우 통분해하였다. 조만식이 고려호텔에 감금되고 일체 면회가 불허되었기에 김병연은 고려호텔을 서성거리며 조만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당시, 많은 민족진영의 인사들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소련 측의 무자비한 횡포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떠나고 있었다. 김병연도 평양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신변의 위협에 늘 노출되었다. 주변 인사들의 권면에 이끌려 그는 결국 남쪽행을 결심하고 단신으로 1월 5일에 월남하기에 이른다(<상공일보> 1950.6.20). 평양을 떠나면서 한 그의 한탄이다.

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1946년 8월 28일 평양에서 ‘북조선노동당’ 창당대회가 열렸고 31일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두봉이 당 위원장에 김일성(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허가이가 부위원장에 당선되었다(선즈화, 김동길 외, 2017: 164-165, 168).

11) 1945년 12월 31일 평양에서 소련군정 민정사령관 로마넨코와 김일성과 박헌영이 회의를 가지면서 신탁에 대한 소련의 계획을 들었다. 신탁을 지지하라는 소련군의 요구에 둘은 받아들였다. 소련군은 신탁통치안에 따라 수립될 임시정부 좌우파 비율을 2:1로 설정하였다. 이북의 통합된 세력 하나와 이남의 좌파세력 하나가 합하여 둘이 되고, 나머지 남한의 우파세력이 하나가 되면 결국 2:1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산당이 임시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근로대중단체를 확대, 강화하는 방법과 삼상회의 결과를 지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장금현, 2017: 175-176).

12) 평양에 남은 위원들은 조만식, 이윤영, 김병연, 박현숙, 한근조, 이종현, 백남홍 등 7명이었다.

13) 조만식이 사의 표명 후 퇴장하자 김병연 등 민족진영 측 위원들도 일제히 퇴장했다. 공산당 측에 공조하던 홍기주는 남았다. 소련군정은 조만식의 위원장직 사표를 수리하고 홍기주를 위원장으로 세우고 조선민주당 부당수까지 임명했다(김내영, 2011: 211).

“아, 이제 평양을 떠나야 하는구나. 고당과 함께 최후까지 북한주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하는데.....,”(김내영, 2011: 214)

2. 남쪽에서의 조선민주당 재건

김병연은 북한이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이전에 월남하였다. 북한주민들의 대거 월남은 토지개혁으로 인한 토지 무상몰수(1946년 3월 5일자로 법령공포)를 당한 뒤였다.¹⁴⁾ 김병연은 월남하고 바로 조선민주당의 남천(南遷) 재건운동에 참여했다. 조선민주당을 남한에서 재건하자는 움직임은 조선민주당 사무국장이었던 이종현이 월남한 1946년 1월 초부터였다. 이종현과 한근조에 의하여 발의된 조선민주당 재건운동은 김병연과 이윤영(부당수)의 월남으로 급속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민주당 재건사무소는 오경숙¹⁵⁾의 집에서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 발족한 조선민주당 부당수 이윤영은 ‘조선민주당 서울 이전에 대한 첫 성명서’에서 평양에서 최용건이 불법으로 가로챈 조선민주당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제 서울에서 정통 조선민주당을 재건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1946년 4월에 당 재건 성명을 발표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동아일보>, 1946.4.30.) 그해 4월에는 한국 민주당 인촌 김성수의 호의로 당 본부를 한민당¹⁶⁾사(현재의 동아일보사) 아래층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이때부터 당의 활동은 본 궤도에 올랐으며 북한에서 계속 월남해 오는 당원들과 일반 피난민들을 맞이하여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당세를

14)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며 김일성은 대지주 토지국유화, 소작제도 철폐와 농민에 무상분배라는 3대원칙을 3월 5일 발표했다. 이북과 동유럽의 토지개혁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동유럽은 파시즘 세력에 대해서는 토지를 무상몰수하였고, 일반 대토지 소유자의 경우 유상매수하며,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지주층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농민층의 토지소유 요구에 부응하려는 이유에서였다(김성보, 2000: 138).

15) 오경숙은 평양 신양리에서 메리야스 공장을 경영하여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일제 말기에 경제경찰 등쌀에 못 이겨 사업과 재산을 정리해서 서울로 이거했다. 그는 고당의 조선물산장려회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재단법인 인정도서관의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김병연과는 홍사단 사건 때 함께 옥고를 치른 동지였다.

16) 한민당은 당시, 대표적인 우파였다. 미군정은 우파와 좌파, 양극단을 지양하고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를 기대하였다. 그 대안으로 출범한 단체가 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요직을 점하고 있었다. 1946년 1월 16일 2차로 선출한 중앙집행위원 30명 중에 조만식 선생도 포함되었다. 한민당 내 친이승만 그룹에 속한 유억겸, 구자옥 등은 독촉중앙에서 실무를 맡기도 했다(장금현, 2017: 182-183).

확대, 정비하였다.¹⁷⁾ 부당수 이윤영은 기자단 앞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당의 사명이 통일과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한 활동임을 분명히 밝혔다.

당의 재건을 위해 무엇보다 조만식이 절실히 필요함을 절감한 김병연은 제2차 조만식 모셔오기(제1차시에는 한근조와 그의 아들 한양섭이 시도)를 다시 시도하였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조만식을 재건 조선민주당에 당수로 추대하였다. 부당수에는 이윤영과 한근조, 사무국장에 이종현, 김병연은 정치부장에 임명되었다. 얼마 못가서 부당수제를 폐지하고 조만식 밑에 최고위원제를 두었다.¹⁸⁾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국회 진출에 있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매우 부진했고, 이후 당세가 점점 약화되어갔다.¹⁹⁾

재건 조선민주당은 수년 동안 한민당 당사의 아래층을 빌려 쓰다가 1949년에 영락빌딩을 당사로 마련했다. 당사가 영락빌딩으로 옮겨진 이후는 이북 피난민들이 당사를 의거처로 많이 이용했다. 따라서 당은 ‘이북인 상조회’라는 피난민을 위한 생업 지도기관을 설치하고 활동했다. 1.4 후퇴로 피난민이 대거 남하한 때에는 그들을 위한 북한 피난민연맹 본부를 당사 안에 두기도 하였다.

1947년 5월에 재건 이북인 단체 대표 60명이 이북인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 부서를 결정하는데 김병연은 총무부장으로 선출되어 이를 감당하였다. 다음해 3월, 남산공원에서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재남한 이북인대회가 김병연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서북인민에게도 정치적 발언권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948년 5월에는

17) 조선민주당 일주년 기념식을 종로 YMCA에서 진행하였는데(기사제목은 ‘한민당 일주년 기념식’임), 미군정 하지 중장,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들의 축사가 있었다. <동아일보> 1946. 11.14.일자.; 김병연은 ‘이북정세보고’를 함.

18) 서울, 인천, 전주, 부산 등에 지방당부를 조직하고 서울과 부산 등에서 당대회를 열어서 정강, 정책 등을 수정하여 북한에서의 창당 당시에 미흡하게 표현되었던 당의 특성이 강화되었다. 그 일환으로 남한 인사를 교섭하는 것이었고, 이에 김동명(이대 교수), 주요한, 이용설 등이 입당했다. 이당시도 입당 대상 인선과 교섭은 주로 김병연이 맡아서 하였다(<동아일보> 1951. 9.11.); 이때, 김병연은 최고위원에 선출됨. 기사제목은 ‘한민당 간부개선’임.

19) 당세력 확장을 위해서는 당내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많아야 했다. 그러나 조선민주당의 선거 결과는 매우 부진했다. 그 원인은 아직까지 ‘피난민 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데 있고 피난민의 표만을 가지고서는 당선될 수 없었으며 절대다수의 남한주민의 지지를 받아야 했다. 이런 연유로 당내에서 이탈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낙선했던 이용설은 다음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조선민주당의 당내 대표인사들이 정계의 주요자리에 등용되는 바람에 당 업무에 전념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윤영은 무임소 장관, 사회부 장관, 국무총리 서리로, 이종현은 강원도 지사와 농림부 장관으로, 김병연은 초대 총무처장과 평안남도지사를 지냈다. 박현숙은 자유당으로 옮긴 후 국회의원, 무임소 장관을 역임했다.

재남 이북인 대표 80여 명이 모여 국회가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 상원에 이북인 대표의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한근조, 이종현, 백영엽, 김병연, 함상훈, 박현숙, 이선교, 원복범 등 8명의 교섭위원을 선임하였다.

김병연은 월남 이후, 주로 조선민주당을 통하여 정치활동을 펼쳤다. ‘평안청년회’를 조직하여 공산좌익계의 선동에 의한 공장 파업과 태업을 방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²⁰⁾ 그 후 이 조직을 모체로 서북청년회, 대동강동지회, 압록강동지회가 생겨났다(김내영, 2011: 228).

김병연은 홍사단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홍사단을 세운 안창호와 이승만의 재미시절부터 서로 간 적대시한 사실을 잘 알았음에도, 심지어는 이승만 정부에서 총무처장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사단 정신의 생활신조화에 철저했었다.

3. 이승만 정부의 관료로서 활동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몇 달 앞선 5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에²¹⁾ 의해 구성된 초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비롯하여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이 마련되었다. 헌법이 제정된 직후에 있는 대통령선거(간접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고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뽑혔다. 이승만은 초대 국무원 조직을 서둘렀고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하는 초대내각을 구성했다. 이 초대 내각에서 이윤영은 무임소 국무위원이 되었다가 얼마 후 사회부 장관이 되었다. 김병

20) 「평안청년회」는 1946년 5월 7일 약 800명의 단원으로 서북청년들에게 부과된 특수한 사명을 완수하고자 결성되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46.5.7.); 평안 청년회는 5월 18일에 임시대회를 개최, 미소공동위원회 무기휴회 및 공산당의 위조지폐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결의문을 작성했다. 첫째, 임시정부수립을 방해하며 미소공동위원회로 하여금 무기연기를 부득이하게 한 좌익극력분자의 음모를 결사분쇄하자. 둘째, 우리 영토를 분단하고 민족분열의 최대의 장벽인 3·8 교수선을 결사타파하자. 셋째, 생지옥에서 헤매며 싸우는 3·8 이북 동포를 결사구원하자. 넷째, 천추의 위국에 직면한 조국의 광영을 위하여 3천만의 전위로 결사노력하자(<가정신문> 1946.5.21.)

21) 이승만과 미군정은 1948년 3월 1일에 정부수립을 위한 보통선거를 앞두고 새로 세워지는 정부는 삼일운동과 카이로선언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정부라는 사실을 천명하였다. 그전에 좌익은 1945년 9월 급조한 조선인민공화국을 1946년 3·1절에 인민선거를 통해서 정식으로 출범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해방 후 첫 번째 맞이하는 1946년 3·1절에 좌우세력은 역사적 정통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47년에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이 3월1일을 기해서 임정법통론에 근거한 정부를 세우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박명수, 2017: 72).

연은 총무처장이 되었다.²²⁾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해임되고 말았다. 주된 이유는 해방 전 일본인 소유의 주택, 부동산 등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다가 대통령의 측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총무처장에서 물러난 3개월 뒤인 1949년 2월 15일에 그는 이북 5도지사 중 평안남도 지사에 임명되었다.²³⁾ 이북 5도청이 조직은 비록 작았으나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의는 매우 컸다.²⁴⁾ 이북 5도 지사제 자체는 현실상 필요했고 상당한 행정 실적을 올렸다. 특히 당시에 이미 2백만 명이 넘었던 월남한 이북인들에게서 절대적 환영을 받았다(김내영, 2011: 247).

김병연은 일차적으로 다른 이북 4도와 협동하여 이북 출신 인구 동태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이 꽤 많은 진척을 이루었지만 6·25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든 자료가 유실되어 버렸다.

김병연은 또 도정기관 신문 <평남공보>를 1950년 1월 15일 공보처에 등록하여 창간하였다. 이것은 관보가 아닌 신문이었다. 민중의 사상과 생활신조를 계몽, 지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 신문도 제6호까지 발행하고 역시 6·25전쟁으

22) 김병연이 총무처장에 임명된 것은 이윤영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 이윤영은 당시 조선민주당의 수석 부당수였으므로 신정부에 당내 인물을 참여시킬 생각에서 김병연을 천거하였다. 김병연을 추천한 또 한 사람은 국무총리가 된 이범석이다. 김병연이 ‘평안청년회’를 조직하여 지도하고 있을 무렵, 중국에서 환국한 이범석도 ‘조선민주청년단’을 창설하였다. 두 사람은 청년운동 관계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이범석은 김병연에게 호감을 가졌고 이윤영이 천거한 김병연을 이승만에게 호의적으로 진언했다. 또 한 사람은 이종현이다. 이종현은 당시 이승만이 총재로 있었던 ‘대한독립 축성회’ 최고간부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다. 그는 이승만과의 자주 접촉한 관계였기에 김병연이 초대각료의 책임자라고 진언했다. 이승만은 점점 증가하는 월남 이북인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권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북 출신 인물을 기용하고자 하였다(김내영, 2011: 239).; 김병연은 1948년 10월 24일에는 중앙정부 체육회장에 임명되기도 한다(<대한일보> 1948. 10. 24.)

23) 당시, 정부조직법에는 이북 도지사의 직제가 없었으므로 우선적으로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무부 지방국과 상의하여 직제에 대신할 지방 국장의 통첩형식으로 직원을 둘 수 있게 했다. 또한, 서무국에서는 월남인의 인구동태 조사, 사상 선도, 생업대책 등과 구제, 원호 사업 및 이북 정보수집 업무 등을 다루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북 5도청 사무소를 두었다. 실제로 이북 5도 지사는 행정영역을 갖지 못하고 다만 이북 향우들 간에 정신적 귀의와 약간의 구원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 직책이었다.

24)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전부를 영토로 삼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북한지역이 괴뢰정권에 강점당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불법집단이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권위를 선제 선포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통일 의의를 행정적으로 표징했던 것이다.

로 중단되었다. 그 후 1952년 5월 31일에 피난민들이 밀집되어 있던 부산에서 복간되었다.

당시는 1·4후퇴 직후여서 북한의 피난민들이 대거 남하했으므로 그들의 헤어졌던 가족을 찾아주고 또 각지에 흩어진 친척과 지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매체로 큰 역할을 하였다. 피난지에서의 도청의 가장 큰 업무는 피난민 심사증을 발부하는 것이었다.²⁵⁾ 또한, 피난민들의 취직 및 진학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었다. 이때 김병연은 <평남공보>의 지면을 확대하여 사람 찾아 주기와 상호간의 소식을 전달하는데 힘썼다. 또한, 대전, 목포, 군산, 제주도 등 피난민 집결지구를 순방하여 위문과 강연을 하고 시, 군민회도 열어서 전시 피난생활을 격려하고 지도했다. 김병연이 지사직(10년 3개월 재임)을 물러난 후 1959년 5월 15일자 제88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김병연은 그 신문발행의 권리 일체를 인수받아서 <평남민보>로 이름을 바꾸고 1959년 8월 15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4. 재야에서의 애국운동

김병연이 평안남도 지사직에 물러 난지 일주일 후에 해임 위로자리에서 평안남도민회가 개편되고 그를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기존의 재경 평남도민회를 평남중앙도민회로 확대시킨 것이다. 후임 지사로 부임한 길성운도 대찬성하며 김병연을 도정 최고 고문격으로 모신다고 하였다. 그 후 6월 27일에 평안남도 중앙도민회 제4차 대의원 총회가 열렸고 김병연이 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밖에, 1961년 10월 28일자로 재단법인 광성중고등학교 이사장에 취임했다.²⁶⁾ 1963년에는 재단법인 성광학교 이사장에도 취임하여 육영사업에 힘썼고 1964년에는 향토문화의 전통을 자랑하는 <평양지>를 간행하였다.²⁷⁾

25) 이 심사증은 임시 정착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내무부, 사회부, 군, 민사부 등 관계기관의 합의로 이북 도청에 위임해 전담하도록 한 업무였다.

26) 이 학교는 평양에서 70년의 역사를 가진 교육기관으로 감리교 선교회 계통에 속해 있었는데 해방 후 북한공산당에 의해 몰수당하여 사실상 폐교되었다. 그러던 중 이 학교의 교사였던 김기연, 윤중식이 피난지 부산에서 재건활동을 전개하여 당시 광성중고등학교 재건사무소를 부산의 평남도청 사무실 내에 두고 운하의 신세를 진 적이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재단이사장에 취임한 것이다.

27) 김병연과 3·1운동을 함께 한 동지였던 황경환이 창경원 장서각의 촉탁 공무원으로 있을 때 서고에서 조선중엽 이후에 편찬된 <평양지> 15권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평양지를 간행하기로 계획하고 평남민보사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동시에 <고당전>도 간행을 추진했다. <평양지>는 장

IV. 김병연의 애국·애족운동 방식 및 대북관·통일관

1. 애국·애족운동 방식

(1) 투쟁 및 계몽운동 병행

기독교 신앙 안에 자라 신학문에 갈급해하던 김병연은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대성 학교(초대교장, 윤치호)에 입학하였다. 대성학교에서 안창호와의 인연은 그를 평생 정신적 지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안창호가 펼친 홍사단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였다. 동우회사건으로 안창호와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월남한 이후에도 김병연은 도산의 정신을 계승하는 홍사단 운동의 최선봉에 섰다. 홍사단 운동의 핵심은 국민계몽 및 실력배양을 통한 민족적 역량 축적이다. 당시, 홍사단 정신으로 모인 인사들은 적극적인 무력투쟁의 방식보다는 민족계몽과 훈련, 실력양성 등을 통하여 점진적 독립을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중의(衆意)를 택하고 있었다. 3·1운동에서 비롯된 저항방식의 독립운동과는 그 성격을 달리했다.

청년 김병연의 애국운동은 한때, 투쟁적인 때도 있었다. 임시정부 중에 하나인 한성 정부(집정관 총재 이승만, 노동국 총반 안창호)에 속한 철혈청년단²⁸⁾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청년단에서 각종 인쇄물을 배포하다 평양감옥에 수감(24세, 1919년 8월)되기도 했다.²⁹⁾ 몇 년 후(1923년)에는 간도군관학교사건으로 다시금 6개월간의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김병연은 홍사단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김병연은 투쟁적 독립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김병연이 홍사단에 참여하면서도 투쟁적 독립운동을 함께 진행한 것은 독립투사 도

서각 소장 고문헌 15권을 전부 영인본으로 수록하고 이흥근이 집필한 ‘평양지 해설’, ‘일정 치하의 평양부 약지’, ‘북괴 중앙으로서의 평양소지’ 등 3편을 붙여서 평양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이것은 김병연을 비롯한 유지 향우들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평양 중심의 향토문화재를 영구 보존하고 근대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큰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고당전>은 운하가 작고한 이듬해인 1966년 3월 15일자로 출간되었다. 책이름은 <고당 조만식>이었다. 이 책은 고당 전기로는 최초의 것일 뿐만 아니라 김병연으로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인 중요한 사업이었다.

28) 1919년 4월 김병연, 조형식, 노봉규, 김몽진 등은 청년 동지들과 학생층을 규합하여 철혈청년단이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임시정부 선포문, 동 각료 명단, 동 행정명령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국민대회 취지서와 철혈청년단보 등 비밀문서 수종을 발간하여 평양 시내와 주변 농촌지대에 반포하였다.

29) 김병연은 그 감옥에서 또 다른 정신적 지주가 된 고당 조만식과 첫 조우를 하게 된다.

인권의 영향 및 관계성에서다. 도인권은 구한말 군관으로 백범 김구가 학무총감으로 있던 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고 안악사건³⁰⁾으로 김구를 비롯한 100여 명과 함께 구금되어 10년 징역형을 받는다. 6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그는 3·1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의 군사국장, 무관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고 그 뒤 임정의정원 부의장을 지냈다. 그와 김병연의 인연은 그가 안악사건으로 형을 살고 나온 후 김병연의 집 근처에서 살 때부터이다. 김병연은 그의 남성적인 용맹함과 강직함, 몸을 사리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더불어 그의 돈독한 신앙심에 매료되었다. 그의 투쟁적 독립운동은 김병연에게 있어 하나의 큰 지표가 된 것이다.

김병연의 애국운동의 추(鍾)가 사회활동으로 옮겨진 시기는 간도군관학교 사건으로 제2차 투옥되어 6개월을 형을 살고 나온 후 3년이 지나(1927년, 27세) 조만식이 이끄는 평양 YMCA에서 유급 서기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이때부터 김병연은 조만식의 비서역할을 하며 조만식이 지도하는 각종 사회단체에 임원으로 참여하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2) 안창호-조만식의 민족운동 병합

안창호는 ‘기독교 민족주의’를 전국적으로 보급시킨 장본인이다. 이 사상은 ‘기독교’와 ‘민족’을 접합시킨 것으로 개화계몽시기 독립협회로부터 출발하였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근대화 혹은 문명화를 매개하면서 민족주의와 깊숙이 연결되어 한국사회 주류 종교로 자리 잡아 나갔고 한국 민족주의가 일제시기 한국사회에서 보존되고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와 매개가 되었으며 기독교 복음이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 민족주의와 ‘접합’하여 ‘기독교 민족주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개화계몽기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성리학의 영향아래 있었다. 하지만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민족주의를 접합시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주요인물은 독립협회(1896년)를 설립한 서재필, 윤치호, 안창호이다. 이들은 개신교 개혁가들로서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힘을 기르기 전에 내면적, 영적, 윤리적 강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상을

30) 안악사건은 안중근 의사의 종제인 안명근이 만주에 독립군의 군관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해서지방의 부호들에게 거액의 군자금을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1911년 2월 11일 일본 헌병대에 검거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구, 이승훈, 이동휘 등 100여 명의 애국지사가 검거되어서 가혹한 고문 끝에 중형을 받았다.

내세우며 인간개조 및 인격수양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안창호는 이 사상을 토대로 홍사단(1913, 미국 샌프란시스코)을 세웠고 그의 요청으로 그 자매단체(국내조직체)들이 서울(1921, 수양동맹회)과 평양(1923, 동우구락부)에서 각각 세워졌다가 1925년 ‘수양동우회’로 통합되었다. 안창호는 철저히 조직의 비정치화를 내세웠다.³¹⁾ 1927년 좌우합작의 단일정당성격의 사회단체인 ‘신간회’가 초기 결성되었을 때 ‘수양동우회’를 참여시키지 않았다.³²⁾

그런데, 김병연은 수양동우회 핵심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신간회’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민족진영의 대표지도자로 신간회를 맡기하고 본부 중앙임원 겸 평양지회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조만식이었기 때문이다. 조만식도 안창호에게 감화를 받은 대표적 인물이지만³³⁾ 홍사단의 평양조직인 동우구락부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수양)동우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인격수양위주의 실력양성을 기치로 내세우며 정치참여를 지양한 안창호의 애국운동방식과는 거리를 둔 것 같다. 조만식의 이러한 의식은 그의 비서면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던 김병연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것이 김병연이 수양동우회 핵심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신간회 평양지회 상임간사에 임명되고 후에는 상무집행위원으로 평안남도 연합회조직에도 참여한 주된 이유로 보인다. 한편, 김병연은 1937년(42세) 동우회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처럼, 김병연은 안창호의 사상 및 민족정신을 따르면서도 조만식의 애국운동 방식을

31) “본회는 자기수양과 문화사업을 조선인에게 고상한 덕과 필요한 지식과 건강과 부를 향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절대로 시사 또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주의이다”(재등실문서 1921.11.29.; 이현주, 2003: 188)

32) 신간회가 대중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민중계몽의 방식과는 다른 것인데, 수양동우회가 스스로를 정치와 시사에 간여하지 않는 ‘수양’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이현주, 2003, 190); 한편, 1927년에 들어서면서 수양동우회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1월 16일에 수양동우회 의사회는 ‘회 진흥방침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위원으로 조병옥과 주요한, 이광수를 선임하였다. 이때 조병옥은 주요한과 함께 수양동우회를 민족주의자의 거두를 망라한 정치단체로 개조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이것은 창립 이래 견지해 온 조직적인 정치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었다(도산안창호자료집 I, 236.; 이현주, 2003, 196)

33) 조만식(1883-1950)은 평남 강서 출신으로 안창호와 같은 동향인이다. 안창호는 1878년생으로 조만식보다 5년 빠르다. 안창호는 귀국하여 1907년 이승훈을 비롯한 인사들과 신민회를 결성한다. 또한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치하여 청년학위회를 조직했다. 조만식은 일본유학을 마치고 1913년에 귀국하여 평안북도 정주에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에 교편을 잡은 적이 있다. 조만식은 1907년, 안창호의 평양 연설을 듣고 매우 감명을 받았었다.

쫓기도 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해방 이후 월남하기 전까지 북쪽에서의 그의 생활은 정치인 김병연으로서의 삶이었다.

2. 김병연의 대북관 및 통일관

(1) 철저한 반공주의

조만식을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정치활동이었던 평남건국준비위원회에 김병연도 참여하여 건준의 조직편성을 맡았으며 무임소(민족주의) 직책을 가졌다. 더불어, 참여제를 두어 평남지역 70명의 인사들을 위촉하는데 있어 그 인선 및 활동들을 주로 김병연이 전담했다. 이전에 조만식이 이끌던 사회단체들에서 실무를 전담했던 것처럼 평남 건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만식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그였다.

하지만, 평남 건준이 활동할 무렵 바로, 평양에 소련군이 진군하여 군정을 실시하였고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소련군 총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은 이 좌우합작 방식의 인민정치위원회 수장으로 조만식을 앉혔다. 이때, 김병연은 도 재무위원에 임명되어 세무서, 전매국 등을 인계받아 부서를 개편하고 인사발령을 했다. 그는 조만식의 공약대로 악질분자만 정리하고 대부분의 일정시대 관리들을 유임시켰다. 하지만, 공산당측(현준혁 계)은 그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그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방해하며 나섰다. 이로 인해 김병연은 공산당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다.

김일성(공산당 세력)에 대한 반감은 조선민주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모스크바로부터 공산당원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말고 민족주의자들을 내세우라는 지령을 받은 소련군정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정당 창설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남북분단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조만식은 신당 창당을 반대하였다. 소련군정은 김일성에게 조만식을 설득시키라고 지시를 내렸고 김일성의 전략에 조만식이 넘어가 신당창당을 수락했던 것이다. 김일성이 부당수로 적극 참여한다는 약속 하에 조만식은 김일성 환영대회 준비위원장직까지 맡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민주당이 11월 3일 창당되었을 때, 김일성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그의 측근 최용건을 보냈다. 조선민주당에 최용건을 부당수로 침투시킨 김일성의 야욕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진영의 지도력을 이용하다가 적당한 기회에 당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다. 김일성은 조선민주당이 창당되자

곧 바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책임비서 자리에 앉았다. 김일성이 북한 정계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조만식은 김일성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분해했으며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 본 인물이 바로 김병연이었다.

조선민주당의 당세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는 것을 본 김일성 세력은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조선민주당 사무실을 습격하여 당원들을 폭행하고 죄명을 날조하여 투옥시키는 등 야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후, 신탁통치 결의 문제에서 김일성 세력과 최악의 상태까지 다다랐다. 처음에는 반탁운동에 나섰던 공산당측은 소련의 지령으로 찬탁으로 돌아서며 반탁운동을 하는 민족진영 측에 난폭한 폭력을 휘둘렀다. 이 사건은 김병연으로 하여금 공산당들에 대한 반감을 넘어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신탁통치문제 이후, 김일성 공산당 세력과는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되어 버렸다. 훗날 김병연은 그의 글에서 김일성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김일성 도배는 매국, 매족의 창귀임은 공연한 비밀입니다. 그의 정체는 장백산 백두산 밀림을 중심으로 심여도취를 가지고 도망하던 비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호언장담을 하며 빨치산의 혁명적 대영웅으로 자처하고 장군명군의 찬사를 받고 있음은 크레믈린 작회의 기만성을 북한일각에서도 연출됨이 역역한 일이 아닙니까”³⁴⁾

결정적으로, 김병연으로 하여금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되게 한 것은 소련군정과 김일성 세력의 조만식에 대한 처우 때문이다. 1946년 1월 5일, 신탁통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조만식을 소련군정은 고려호텔에 감금시켰고 일체의 면회를 불허했다. 이것이 조만식과 김병연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아래는 이 당시를 회상하며 통분해하던 김병연의 글(북한특보 창간호)이다.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선생의 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 7개월 1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1주년 축하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경축제전을 당하여 저는 남달리 선생을 추모하는 생각이 절절하여지며 감회는 더욱 깊습니다. 선생의 거취를 모르는 오늘에 생호아 사호아의 관두에서 생각할 때 마음 아픈 분노는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월남한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김병연은 초대 총무처장직을 수행했고 10년 넘게 이북 5도청 평안남도 도지사로 봉직했다. 재임시, 누구보다도 월남한 북한사람들을 많이

34) <북한특보> 창간호 1949년 9월.

만났던 그는 북한 김일성 세력의 잔인성에 대한 내용을 수도 없이 접했을 것이다. 그는 평안남도 도 기관지인 <평남공보>³⁵⁾를 통해 북한 공산당의 잔혹성을 고발했고 반공을 부르짖었다.

“여러분은 공산주의에 그릇 떨어져서 원치 아니하는 전쟁에 동원되었던 것이며 공산 악마³⁶⁾의 강요를 받아서 동지에게 총을 겨누었던 것입니다.”(김병연, 1954)

“이북원지에 남아 있는 도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도 적수들의 폭정 밑에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으셨으며 자유조국이 웅거하고 있는 남쪽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통분의 한숨을 지으셨습니까? 자나 깨나 잊지 못하는 것은 국토통일을 기원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³⁷⁾

“동포여러분! 공산주의가 붕괴되고야 말 것은 필연의 추세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생명으로 삼는 인간성 그 자체에 대하여 그들이 반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³⁸⁾

아래 그의 글을 보면, 김병연은 누구보다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의 불합리 및 허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공산주의는 인간성 개조에 실패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그들은 유물철학의 견지에서 인간이란 물질적 환경의 힘을 갖고 마음대로 틀어 고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공산당 철의 조직을 갖고 훈련하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아무 의심도 갖지 아니하고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자유’를 생명으로 삼는 인간성이란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증명되었습니다.”³⁹⁾

35) <평남공보>는 이북5도청, 평안남도의 대변지(관영지)로 1950년 1월 15일 창간, 당시 평안남도 도지사(1949.2.15. 취임)였던 김병연이 발행인이다. 1950년 6월까지 6호까지 내고 6.25 동란으로 발행 중단. 1952년 5월 31일에 부산에서 복간, 1959년 김병연의 도지사 사임으로 5월 15일자 제88호로 폐간됨. <평남공보>의 발행인이었던 김병연은 제2호(1950.2.15.) ‘도민제위에게 고함 -자력건설에 매진하자’라는 제목의 기고를 시작으로 제88호(1959.5.15.) ‘열사봉공 체행하여 간성의 영예를 살리자’ 기고까지 총 16편의 기고글을 실었다.; 1959년 김병연이 평안남도 도민회 회장(6.27)을 맡은 후, 7월 31일에 <평남민보>로 개제하고 민영지로 8월 15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함.

36) 한정직 목사는 북한의 공산당을 ‘사단의 회’요, ‘악의 세력’이며 단순히 지리적으로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집단이 아닌 남한에도 간첩이나 좌익세력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계속 뻗고 있으며, 호시탐탐 남한을 혼란에 빠트리려고 한다고 했다(박창훈, 2015: 201).

37) 김병연, ‘희망이 담긴 정유년’ <평남공보> 제62호 1957.1.15.

38) 김병연, ‘연두사-정의필승의 신념으로 국토통일을 촉구하자’ <평남공보> 제84호 1959. 1. 15.

39) 위의 내용은 폴란드의 포즈난시에서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를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킨 사건과 헝가리에서 열 살 안팎의 소년들이 소련에 저항하며 자유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쓴 글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가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동포여러분! 공산주의가 붕괴되고야 말 것은 필연의 추세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생명으로 삼는 인간성 그 자체에 대하여 그들이 반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⁴⁰⁾

(2) 대미, 중도주의 지향 : 사대주의 배경

기존연구를 보면, 월남 개신교(정치인)인들을 친미주의자들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강인철⁴¹⁾, 1993; 김귀옥, 1999; 김상태, 2001), 김병연의 글을 보면 그를 친미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그의 글에서 남북분단의 책임을 미국에게도 강하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⁴²⁾

“우리 국난의 근본원인이 국토분단에서 발원하였다 함은 균형을 추구하는 국제적 거래에서 온 것이니 미국을 비롯하여 직접간접으로 이 일에 관여한 모든 국가들은 연대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해 놓아야 할 것이요”⁴³⁾

또한, 김병연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사대주의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얼마 전 미 국회 하원이 우리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안을 상정하였을 때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었다...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 국회가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 경위를 상고해 보면 몇 가지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우리는 지금까지 타력에만 의존하기를 즐겨했다...사대주의의 그릇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⁴⁴⁾

임. 김병연, ‘연두사-희망이 담긴 정유년’ <평남공보> 제62호 1957.1.15.

40) 김병연, ‘연두사-정의필승의 신념으로 국토통일을 촉구하자’ <평남공보> 제84호 1959. 1. 15.

41) 관련 핵심 내용이다. “반공’과 마찬가지로 ‘친미’역시 한국 기독교인의 절대다수에 의해 폭넓게 공유되고 또 높이 평가된 가치였다. 개신교의 경우 복음을 전해준 것도 전도에 필요한 막대한 물질적 원조를 제공한 것도 미국인들이었으며 무엇보다 일제 지배하에서 개신교인들은 미국인과 지속적, 전면적으로 접촉을 유지한 거의 유일한 한국인집단이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미국과 맺은 특수한 ‘인연’은 일제의 탄압과 한국전쟁기의 파괴로부터 교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대미의 존성’으로 인해 한층 돋보이는 것이 되었다. 때문에 해방후 개신교회는 한국시민사회 안에서 가장 ‘미국화’된 부분이었고, 친미주의의 강력한 성채였으며, 친미적인 수사가 넘쳐흘러 시민사회의 다른 영역으로 스며드는 발원지였다.”(강인철, 1993: 101)

42) 김병연뿐만 아니라, 신탁통치 찬반논쟁이 불거질 당시, 반탁측에서는 미국을 해방자이면서도 동시에 정복자라고 비판했다(장금현, 2017: 171).

43) 김병연, ‘해방사 10주년 기념사’ <평남공보> 제55호 1955.8.15.

김병연은 해방이후 자력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力說)하면서 3·1운동 당시, 막강한 일본을 맨주먹으로 대항했던 3·1운동을 교훈삼아 자력건설, 자력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자력건설의 가장 큰 방해요소를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질타하였다.

“만일에 우리 대한이 자강자부(自強自富)치 못하고 강국상쟁의 무대를 재현한다 할진대 어떻게 자손만대의 행복을 보전하며 세계평화의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사대제패의 야망을 아직도 청산치 못하는 소인배는 내(內)로는 민족을 해하고 외(外)로는 세계를 어지르는 죄악을 범하는 자다.”⁴⁵⁾

김병연이 가장 즐겨 인용했던 사자성어가 “천(天)은 자조자(自助者)를 돕는다”였다. 그렇다면, 김병연이 미국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이는 그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6·25당시, 9·28 수복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북 5도청 각 도지사들에게 수복지구인 각도의 행정편제를 명령하면서 각도, 시, 군의 간부급 공무원과 경찰서장급 인선을 빨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병연도 평안남도 행정조직을 짜고 각 간부인선을 하면서 수복지구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때 유엔군은 이승만대통령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미10군단에 의하여 군정부가 설치되고 미8군은 유엔군 민사처 이름으로 김성주를 평남 대리지사에 임명하였다. 이처럼, 북한 수복지구에 군정을 실시하려는 유엔군의 태도가 매우 강경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수궁할 수밖에 없었고 평안남도 지사자격으로 평양에 가려고 준비했던 김병연은 유엔군(미군) 측의 반대로 가지 못했던 것이다(김내영, 2011: 254-255). 이 경험이 미국에 대한 그의 입장에 적지 않은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자주적 통일을 넘어 국제협력, 공조 강조

민족주의 운동가로 김병연은 자주적 통일을 주창하면서도 국제협력, 및 국제공조를 통한 통일을 지향했다. 이 사고의 토대는 분단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서 비롯된다. 그는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의 책임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밝혔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요, 진실로 세계의 문제다. 그러므로 세

44) 김병연, ‘도민 제위에게 고함- 자력 건설에 매진하자’ <평남공보> 제2호 1950.2.15.

45) 김병연, ‘청년구국운동 방략 시안’ <동광지(東光誌)> 41호 1947.5.

계와 우리의 호흡이 일치할 때에만 우리 문제의 해결은 가시할 것이다. 우리 국난의 근본원인이 국토분단에서 발원하였다 함은 균형을 추구하는 국제적 거래에서 온 것이니 미국을 비롯하여 직접간접으로 이 일에 관여한 모든 국가들은 연대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해 놓아야 할 것이요, 우리는 또한 그렇게 요구할 당당한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다.”⁴⁶⁾

김병연은 국토분단을 김일성공산세력의 찬탈로만 보지 않고 세계열강들의 세력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하물며 ‘국토분단’이라는 우리 민족의 너무나 큰 희생은 열강이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흥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는 관계 열강에서 잘못된 사태를 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남공보> 제62호)

이처럼, 김병연은 미국을 포함한 소련 및 국제사회가 연대책임을 통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제협력 및 공조를 강조했다. 동시에, 지나친 자주적 통일을 경고했다. 김병연은 국제정세에 대해 매우 주목하며⁴⁷⁾ 세계적 관점으로 통일을 내다보기도 했다. 즉, 통일의 시기가 국제 현황 및 양상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4) 종말론적 통일관: 통일의 필연성 주장

김병연은 남북분단의 회복과 통일을 반공의 관점에서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기정사실화 했다.

“지금까지 공산당은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근본적 입장에서 잔인무도한 ‘피

46) 김병연, ‘해방사 10주년 기념사’ <평남공보> 제55호 1955.8.15.

47) 김병연은 당시, 국제정세에 대해 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글에서 국제정세에 대해 논한 것이 적지 않고 그 내용이 매우 깊다. “먼저 공산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진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폴란드의 포즈난시에서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를 요구하고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이 신호가 되어 공산세계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는 ‘고불카’정권이 수립되었는데 그는 뱃속까지 공산주의자인 것은 사실이나 ‘티토’의 유고와 같이 폴란드를 소련의 지배에서 이탈시키려는 획책 중에 있습니다... 헝가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세계의 환호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소련제국 전차 60대와 20개 사단의 병력을 갖고도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헝가리 일천만의 저항력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소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오스트리아와 같이 중립국이 되겠다 함이 이 나라 인민들의 물려설 줄 모르는 요구입니다.” <평남공보> 제62호 1957.1.15.

의 숙청'으로 동지를 학살하고 민중을 대량 도륙하며 그 밖의 무슨 악독한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습니다. 만일 공산당의 악랄한 행동이 아무 구김도 없이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계는 정의도, 진리도, 하나님도 없다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평남공보> 제62호 1957.1.15.

그는 공산당이 계속 지탱한다면 정의도 진리도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다고 까지 표현했다. 이것은 반드시 공산당이 무너지고 통일이 도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의 역설일 것이다. 김병연의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 및 자세는 성경의 사도바울을 많이 닮아 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 재림을 먼 훗날로 상정하지 않고 바로 닥칠 현실로 인지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데살로니가전서5:2) 그러나, 사도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아무 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림 전에 반드시 세상에 나타날 징조와 현상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데살로니가후서 2:3). 그의 강조점은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데살로니가후서 2:15). 김병연도 마찬가지다. 그도 조국통일을 멀리 내다보지 않고 곧 도래할 일로 받아들이며 한 해, 한 해를 계수하였다.

“지난 1년 동안도 전 민족이 염원하여 마지아니하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악몽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악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연연히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해 중에는 반드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맹세합니다.”⁴⁸⁾

이처럼,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그는 너무나 마음 아파했으며 새해를 맞으면서는 통일의 염원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김병연도 통일이 아무때나 올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제정세와 맞물려 도래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⁴⁹⁾ 그는 현실적인 상황

48) 김병연, ‘희망이 담긴 정유년’ <평남공보> 제62호 1957.1.15.

49) “현하국제 정세가 움직이는 위세를 갖고 판단할 때에 금년 정유년에는 우리나라 통일을 위한 희망

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조건 통일을 외치지는 않았다.

“우리 한국과 같이 갈급한 처지에 있는 나라로서는 자유세계와 미국이 이런 방침⁵⁰⁾이라면 실망스럽다 할지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두들겨 부숴야 국제문제도, 우리의 문제도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세계와 미국의 전략은 인류를 사랑하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수립된 것입니다. 그것은 소련이 자체의 불안을 면하고 위성국가들의 반란을 탄압하기에만 열중하는 나머지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여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으므로 소련을 우선 그러한 ‘강박관념’에서 구출해내자는 것입니다.”(<평남공보> 제62호)

통일의 소망의 끈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김병연은 통일의 주체가 여전히 조만식 선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조만식 선생이 오신다는 것은 나 개인보다 전 민족이 환영하여 마지않는 것이다. 조만식 선생이 해방 이후에 공산도배와 민족정기를 위하여 싸운 것을 상기하면 어느 지도자, 정치가보다도 위대할 것이다. 특히 내가 기대되는 것은 모든 지도자, 정치가들이 이권, 정치욕에 눈이 어두울 때 조선생은 진정한 민중의 벗이 되어 민중계몽에 힘쓰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조선생의 그 결백한 성격으로 보아 이주하, 김삼룡과 바꾸어지어 월남하시는 것을 승낙할지 두려워하는 것이다.⁵¹⁾ 끝으로 조 선생은 월남하신 후 어떤 정치운동보다도 민중의 벗이 되어 민중계몽을 하실 줄 확신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통일은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될 것으로 믿어진다.”⁵²⁾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월남 개신교 (정치인) 반공주의자들을 ‘친 이승만파’로 규정하는 기존 연구의 주장들도 김병연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연 통일관의 또 다른 특이점(특징)은 그가 무력통일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의 글에서 이 같은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충성된 국민이 되어 공산적도들을 하루바삐 심파박멸하고 조국

이 잔뜩 담긴 해라고 단언하기를 마지않습니다. 금년 중에 완성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훨씬 전진하는 해가 될 것을 스스로 믿는 까닭입니다.”(<평남공보> 제62호)

50) 헝가리 인민들의 고난을 보고도 소련에 대해 무력간섭을 안 하는 것을 가리킨다.

51)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16일에 조만식 선생을 보내주면 이주하와 김삼룡을 돌려보내 주겠다고 평양방송에 언명하였다. ‘이대통령 기자회견담’ <남선경제신문> 1950.6.17.

52) ‘조만식 선생 투쟁사’ <대중일보> 1950.6.18; ‘진정한 민중의 벗-김씨가 말하는 조만식씨의 투쟁사’ <상공일보> 1950.6.20.

통일과 세계평화 확립에 큰 공훈을 세우기를 심축하여 마지않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당연한 옹호를 받고 멸망할 날은 머지않았습니다... 부디 낙심마시고 공산척도들의 행동을 주관합시다. 자유진영의 단결된 행동에서 머지않아 이루어질 전복의 날을 맞이합시다.”⁵³⁾

“친애하는 북한 애국 동포 여러분! 더 자세한 말을 할 수 없거니와 단적인 결론을 내리면 현 하 국내외 정세가 이번 제네바회의를 막음으로 자유진영에서는 다시는 인도주의적 대공 정책비 판이나 외교성의 범도를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만 실력을 갖고 공산주의자의 머리 위에 응징의 단마검을 내려 갈기는 일이 남았을 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당연한 옹호를 받고 멸망할 날은 머지않았습니다.”⁵⁴⁾

물론, 그는 무조건적으로 무력통일을 외치지는 않았다. 우선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했다.

“우리는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온건한 수단으로 유혈 없이 국토통일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⁵⁵⁾

사도바울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처럼, 김병연도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거듭 강조하였다. 그 방법으로 ‘공산주의 타도’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우리 국토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려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공산주의 세력을 타도하는 방향에서 먼저 성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⁵⁶⁾

또한, 조국 통일을 제일 과업으로 삼고 내부결속을 통한 힘의 축적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우리는 새로운 패기를 고양하여 조국통일을 제일 과업으로 삼고 힘차게 매진하되 내부 결속을 먼저 힘쓰고, 거기서 축적되는 힘을 국제무대에서 발휘케 하여야만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함이다. 동포여, 행동하자”⁵⁷⁾

53) 김병연, ‘반공청년을 환영함’ <평남공보> 제28호 1954.2.15.

54) 김병연, ‘제네바회의와 우리의 결의- 북한 동포에게 고함’ <평남공보> 제33호 1954.7.17.

55) ‘멀사봉공의 체행하여 간성의 영예 살리자’ <평남공보> 제88호 1959.5.15.; 이 글에서 김병연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계획을 내다보는 내용을 신기도 했다. “총사(總師)의 대권을 가지신 대통령 각 하께서 공격의 명령을 내리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여러분은 반드시 날쌔 사자와도 같이 돌진하여 미스터커스(로마제국시대의 병사)와 같은 공을 세우리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56) 김병연, ‘연두사- 정의필승의 신념으로 국토통일을 촉구하자’ <평남공보> 제84호 1959. 1. 15.

57) 김병연, ‘해방 10주년 기념사’ <평남공보> 제55호 1955.8.15.

V. 결론 및 함의

본 논문은 인물중점연구로서, 해방정국에 월남한 개신교인 정치인들 중 조만식 선생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역할을 했던 김병연 선생에 대해 집중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해방 전·후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있어 그 방식을 달리한 대표적인 두 지도자들의 사상 및 방식을 동시에 병행했던 인물을 연구한다는 점이다. 김병연 선생은 ‘기독교 민족주의운동’의 대표주자이며 민족계몽운동의 선각자로서 홍사단을 지도하며 인간개조 및 인격수양을 기치로 삼고 비정치화를 내세웠던 안창호 선생을 정신적 지도자로 여겼다. 동시에 좌우합작의 정당성격의 신간회 결성에 있어 민족진영의 지도자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해방정국에서 북쪽지역에서 가장 신망을 받았던 정치지도자인 조만식 선생과 사회활동 및 정치활동을 늘 함께 했었다. 이처럼, 애국운동 방식이 다른 두 지도자를 계승하며 그 민족운동의 접점을 찾아갔던 김병연 선생에 대한 연구는 해방 전·후 민족운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겠다.

두 번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월남 개신교(정치인)인들이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킨 주체이며 동시에, 친미주의자, 친 이승만파로 정치에 편승한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병연 선생을 조명해 볼 때 그가 철저한 반공의식을 소유한 것은 맞지만, 친미주의자도 아니고 친 이승만파도 아님을 확인했다. 김병연 선생은 대미관계에 있어 중도주의를 선호했으며 국토분단의 책임을 미국측에게도 강력하게 돌리는 것을 그의 글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병연 선생은 이승만 초기 정부에서 총무처장(약 4개월)을 역임하고 이북 5도청 평안남도 도지사를 10년 넘게 봉직했지만 그를 친 이승만파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 그의 글에서 이승만 정부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국토통일의 주체를 조만식 선생으로 여전히 상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김병연 선생은 정치에 편승한 자들이라는 규정과도 동떨어져 보인다. 그는 이미 월남하기 전 북쪽지역에서 평남건준 및 조선민주당의 유력인사로 정치활동을 하였던 인물이다. 심지어는 소련군정이 설치한 ‘인민정치위원회’(위원장 조만식)에서 도 재무위원으로 발탁되기도 했으며 북한 지역의 최고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의 최 측근

이자 참모역할을 했었다. 월남 한 후에는 남쪽에서 조선민주당 재건에 앞장섰으며 당 정치부장을 맡았었다. 이처럼, 김병연 선생은 정치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 그 자체였던 것이다.

세 번째, 김병연 선생의 대북관, 통일관이 오늘날 이 시대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김병연 선생의 반공의식은 단지 북쪽지역에서의 공산당에 대한 악몽 같은 경험에 의해서만 작동된 것이 아니다.⁵⁸⁾ 김병연 선생은 공산주의 사상 및 이념의 허상 및 맹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동시에 세계적 안목과 관점에서 그 당시 소련을 위시로 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의 변화 양상을 조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국제적 변화양상이 한반도의 통일을 견인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주적 통일을 넘어 국제협력 및 국제공조를 통한 통일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병연 선생은 국토분단을 단지 김일성 공산세력의 찬탈로만 본 것이 아니라 세계열강들의 세력다툼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국제사회의 연대책임을 통한 통일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인물이다.

58) 물론, 대부분의 월남 개신교인들은 공산당에 당한 끔찍한 경험을 통해 반공주의자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한경직 목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김일성 공산당 세력에 당한 것을 이렇게 회고한다. “어느날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공산당이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고 있었다. 소련군을 따라온 공산당이 트럭에 농민들을 싣고 용천군 불이농장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진이었다... 공산당 책임자가 ‘신의주자치위원회’를 개조해야겠다고 선언하면서 나와 윤(윤하영, 신의주제1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보안부장을 쫓아내고 공산당원으로 보충했다. 경찰권도 빼앗았다. 이쯤 되자 국민들의 분노와 경악이 대단했다. 여기저기서 개탄의 소리가 흘러나왔고, 보복과 싸움 등 사건사고가 연일 터졌다... 공산당에 맞서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보고 신의주자치위원회에서 활약하던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민주당을 조직했다...사회민주당은 공산당과 공산당이 주재하는 위원회와 연일 충돌했다.”(한경직, 2010: 311-312); 주선애 교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북한교회에는 다시 공산주의 정권에 의한 환란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일성 정부와 교회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여 학교에서 월요일 아침마다 공개적으로 벌을 줬다... 교회예배도 허가 없는 집회를 못하도록 했다. 사경회나 부흥회, 어린이 성경학교 등을 하면 지도자를 잡아 가곤 했다. 주일날 국민투표를 해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 있었다... 김일성 수령에 대한 투표가 주일날 하게 되었다. 교인들은 투표하는 주일날 투표를 거부하고 장대현교회에 모여 기도회를 열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공산군들이 총과 칼을 들고 들어와 목사님들을 잡아 준비한 트럭에 실어 갔다... 최목사(최기호, 남편)도 교역자들과 함께 잡혀 들어갔다. 최목사의 몇 사람은 수개월 동안 선교리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었다. 음식도 변변치 않아서 어머니와 나는 교대로 경찰서를 드나들며 음식을 나르는 데 힘썼다. 그의 병은 더 악화되고 있었던 듯했다. 나는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일본 경찰들보다 더 잔인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주선애, 2011: 63-65).

김병연 선생은 다른 측면에서도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진리’차원에서다. 만일, 공산당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 땅의 정의와 진리는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도 없다고 역설할 만큼 통일의 필연성을 주장하였다. 통일의 날을 너무나도 확신한 그였지만 그 통일이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와 맞물리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더불어, 통일 제일 과업으로 내부결속을 통한 힘의 축적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상, 김병연 선생의 애국애족운동 및 대북관, 통일관에서 우리는 어떠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2018년 들어, 남북한 관계가 급변화, 급진전되면서, ‘평화’라는 사회적 담론이 크게 대두되었다. 핵심은 북한을 ‘정상국가화’로 견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해, 교류·협력이 모토(신조)이다. 이것들은 남북한의 상호신뢰 및 적대관계해소를 기반으로 하기에 김병연 선생의 대북관인 ‘공산주의 허상간파 및 공산주의 타도’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아 보인다. 냉전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 평화프로세스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냉정한 관찰’의 자세는 견지해야 필요가 있겠다.

김병연 선생의 대표적인 통일관인 1) 국제사회 연대책임방식의 통일 당위성 마련 2) 자주적 사고를 넘은 국제협력·공조를 통한 통일마련 3) 내부결속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 이 세 가지는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담론보다 평화담론이 보편화된 시기지만 김병연 선생의 통일관을 평화담론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미공조와 국제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선차적으로 한국전쟁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때, 김병연 선생이 주창한 국제사회의 연대책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남북분단 원인에 있어 국제사회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안의 내부 결속을 통한 역량강화이다. 평화로드맵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반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입장의 갈등이라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내부결속은 평화프로세스의 길목이다. 내부결속 역량강화만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넘어 통일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해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Kim, G. O. (1999). *Life experience and Identity of People who came from N.K.*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김내영 (2011). 조국을 구원할 자는 오직 너와 나로다: 애국지사 김병연의 삶. 서울: 쿼란.
- [Kim, N, Y. (2011). *It is only you and me who will save our country: the life of Kim Byung-yeon, the patriotic governor.* Seoul: Qumran publishing.]
-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역 (2017). 최후의 천조: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 沈志華(2013). 毛澤東, 斯大林與朝鮮戰爭. 서울: 선인출판사.
- [Kim, D. G., Kim, M. Ch. & Kim, K. B. (2017). *Mao Zedong's China and North Korea in the Kim Il Sung Era.* Seoul: Sunin Publishing. Sun, Zh. H. (2013). *Mao Zedong, Stalin and the Korean War.* gwang dong/gwang dong inmin publishing]
- 김상태 (2001). 평안도 친미 엘리트층의 성장과 역할.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Kim, S. T. (2001). *The Growth and Role of Pyongando Elites.* Seoul: Korea Christian History Institute.]
- 김성보 (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 [Kim, S. B. (2000).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Economic Struc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System.* Seoul: History Criticism Publishing.]
- 김양선 (1956). 한국기독교해방 십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 [Kim, Y. S. (1956). *Korean Christian Liberation Decade.* seoul: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educating.]
- 김창순 (1990). 북한민주통일운동사: 평안도편. 서울: 북한연구소.
- [Kim, Ch, S. (1990). *North Korea Democratic Unification Movement: Pyongan Province.* Seoul: North Korea Research Institute.]
- 김홍수 (1992). 해방 후 북한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 [Kim, H. S. (1992). *North Korean Church History After Liberation.* Seoul: Dasan Publishing.]
- 박명수 (2016). 조만식과 해방 후 한국정치. 서울: 북코리아.
- [Park, M. S. (2016). *Cho, Man-Sik and Korean politics after liberation.* Seoul: Book

Korea.]

박명수 (2017). 이윤영 목사와 해방공간의 반탁·통일운동.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특별 심포지엄 발표집.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Park, M. S. (2017). *Rev. Lee, Yoon-Young and Anti-Trusteeship-Reunification Movement of the Liberation Space*. Announcement of special symposium celebrating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박명수 (2017). 1947년 3·1절에 나타난 임정법통론과 인민혁명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 서울: 선인출판사.

[Park, M.S. (2017). *In 1947, the response of the US military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Legitimacy theory and People's Revolution*. Seoul: Sunin Publishing.]

박병엽 (20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서울: 선인출판사.

[Park, B. Y. (2010). *The birth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oul: Sunin Publishing.]

박창훈 (2015). 한경직 목사와 사회봉사: 대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Park, Ch, H. (2015). *Pastor Han Kyung-jik and Community Service: Focusing on the Support Project to North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서중석 (2008).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서울: 역사비평사.

[Seo, J. S. (2008). *Research on Korean Modern Movement*. Seoul: History Criticism Publishing.]

양준석 (2017). 해방공간에서의 한반도와 동유럽: 공산화 과정과 기독교 탄압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출판사.

[Yang, J. S. (2017). *Korean Peninsula and Eastern Europe in Liberation Space: Focusing on Communicating process and Christian Repression*. Seoul: Sunin Publishing.]

남기정 역 (2014). 북한 현대사. 和田春樹(2012). 북조선 현대사. 서울: 창비.

[Nam, K. J. (2014). *North Korea Modern History*, seoul: changbi publishing. Wada Haruki, (2012). *North Korean modern history*. pingfanshe new book.]

이덕주 (2014). 평양 남산현교회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Lee, D. J. (2014). *History of Namsan prefecture church in Pyongyang*. Seoul: Korea Christian History Society Academic Symposium.]

- 이윤영 (1984). 백사 이윤영 회고록. 서울: 사초
- [Lee, Y. Y. (1984). *Lee Yoon Young Memoirs*. Seoul: Sacho Publishing.]
- 장금현 (2017).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조선기독교단 남부대회와의 관계: 신탁문제
를 중심으로. 서울: 선인출판사.
- [Jang, K. H.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Council for Independence
and the Southern Conference of Christianity in Korea: Focusing on trusteeship*.
Seoul: Sunin Publishing.]
- 조형·박명선 (1985).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비교. 까치출판사.
- [Cho, H. & Park, M. S. (1985). *Comparison of social struc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 process of settlement of People's who came from
North Korea*. Seoul: Gachi Publishing.]
- 주선애 (2011). 주선애 회고록: 주님과 한평생. 서울: 두란노.
- [Ju, S. Y. (2011). *Ju, Sen-Yae Memoir: The Lord and His Life*. Seoul: Duranno.]
- 한경직 (2010). 한경직 구술 자서전: 나의 감사. 두란노.
- [Han, G. J. (2010). *Han Kyung-jik oral autobiography: My thanks*. Seoul: Duranno.]
- 표도르 췌르치즈스키(이회성) (2018). 김일성 이전의 북한: 1945년 8월 9일 소련
군 참전부터 10월 14일 평양 연설까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 [Lee, H. S. (2018). *North Korea before Kim, Il - Sung*. Seoul: Hanul.]
- 강인철 (1992). 월남개신교, 천주교의 뿌리: 해방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기독교. 역
사비평, 19, 91-141.
- [Kang, I. Ch. (1992), Root of Walnam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Revolution
in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Christianity. *History Criticism*, 19, 91-141.]
- 강인철 (1993). 남한사회와 월남기독교인: 극우반공체제하의 교회활동과 반공투쟁.
역사비평, 23, 73-130.
- [Kang, I. Ch. (1993). South Korean society and Walnam Christians: Church activity
and anti-communist struggle under extreme anti-communism. *History Criticism*,
23, 73-130.]
- 기광서 (2002). 해방 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과 스티코프의 활동. 중소연구, 26(1),
161-194.
- [Kee, G. S. (2002), Soviet Union's Policy with the Korean Peninsula & activity
of Shtykov after Liberation of Korea. *Chinese Soviet research*, 26(1), 161-194.]
- 기광서 (2005). 러시아 문서보관소 사료로 본 소련의 대 북한 정책: 1945~1947. 역

사문화연구, 23, 3-33.

[Kee, G. S. (2005), North Korean Policy of the Soviet Union during 1945- 1947 represented in the Documents of Russian Archives.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23, 3-33.]

김홍수 (1997). 조선기독교연맹과 국가: 북한에서의 정교관계 연구. 한국기독교역사, 7, 227-247.

[Kim, H. S. (1997), Chosun Christian League and State: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Religion in North Korea. *Korean Christian History*, 7, 227-247.]

이현주 (2003). 일제하 (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정신문화연구, 26, 185-209.

[Lee, H. J. (2003), The Strategy for the National Movement of Suyangdonguhoe and Shinganhoe. *Spiritual Culture Research*, 26, 185-209.]

김정숙 (2007). 인천시 황해도민의 정착과 정체성 형성.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Kim, J. S. (2007). *Settlement and formation of identity of 'Hwanghaedo people' in Incheon city*. Masters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 Ju, Korea.]

김태섭 (2004). 북한의 종교정책과 기독교 탄압. 석사학위논문. 장로교신학대학교.

[Kim, T. S. (2004), *North Korea's Religious Policy and Christian Repression*.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김현정 (2010). 1945-60년 월남 개신교인의 현실인식과 통일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Kim, H. J. (2010).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opinions on Unification found in 1945-1960 among North Korean Protestant defectors*. Masters Dissertation. Ewha W. University, seoul, korea.]

박명선 (1983). 북한출신 월남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ark, M. S. (1983), *A Study of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Social mobility of Wolnamin from North Korea*. Masters Dissertation. Ewha W. University, Seoul, Korea.]

박민형 (2001). 8.15해방직후 남북한의 정치현실에 대한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기독교신학대학교.

[Park, M. H. (2001). *Role of church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n politics after the independence 8.15*. Masters Dissertation.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손영준 (1993). 월남한 기독교인의 남한 교회와 사회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신학대학교

[Son, Y. S. (1993). *Influence of Wolnam Christian on South Korean Church and Society*. Masters Dissertation. Korea Theological University, Cheonan, Korea.]

가정신문 1946. 5. 21일자. “평안청년회 임시대회.”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76756262 (검색일 2018.12.14.)

[“Temporary Competition of Pyongan Youth”, Ga-Jeong Sinmun (1946.5.21.). Retrieved from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76756262 (2018.12.14.)]

남선경제신문 1950. 6.17일자. “이대통령 기자회견담: 조만식선생과 이주하 김삼룡과 교환용의 잇다 남북통일성취소원.”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87951789 (검색일 2018.12.14.)

[“President Lee’s press conference”, Nam-Seon Economy newspaper (1950.6.17.). Retrieved from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87951789 (2018.12.14.)]

대한일보 1948. 10.24일자. “중앙정부체육회결성회장에 김병연씨.”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88026748 (검색일 2018.12.14.)

[“Kim Byung-yeon at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sports association”, Da-Han Ilbo (1948.10.24.). Retrieved from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88026748 (2018.12.14.)]

동아일보 1946. 4. 30일자. “서울로 이전한 조선민주당 등록 수속을 마치고 부당수이윤영씨의 담화.”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da_1946_04_30_x0001_0060

[“First Statement on the Relocation of Democratic Party to Korea”, Dong-A Ilbo (1946.4.30.). Retrieved from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da_1946_04_30_x0001_0060(2018.12.14.)]

동아일보 1946. 5. 7일자. “평안 청년회 결성식.” http://db.history.go.kr/url.jsp?ID=np_da_1946_05_07_0260 (검색일 2018.12.14.)

[“Pyeongan Youth Association formation ceremony”, Dong-A Ilbo (1946. 5.7.).

- Retrieved from http://db.history.go.kr/url.jsp?ID=np_da_1946_05_07_0260 (2018.12.14.)]
- 동아일보 1946. 11.14일자. “한민당 일주년 기념식.” http://db.history.go.kr/url.jsp?ID=np_da_1946_10_15_0370 (검색일 2018.12.14.)
- [“Ceremony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Hanmin Party”, Dong-A Ilbo (1946.11.14.). Retrieved from http://db.history.go.kr/url.jsp?ID=np_da_1946_10_15_0370 (2018.12.14.)]
- 동아일보 1947.4.12.일자. “서북학생에 온정- 방응모·김병연씨등 대책위원회 두고 활약.”http://db.history.go.kr/url.jsp?ID=np_da_1947_04_12_0360(검색일 2018. 12. 14.)
- [“Warmth to Northwestern students”, Dong-A Ilbo (1947.4.12.). Retrieved from http://db.history.go.kr/url.jsp?ID=np_da_1947_04_12_0360 (2018.12.14.)]
- 동아일보 1951. 9.11일자. “한민당 간부개선.”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da_1951_09_11_w0002_0170
- [“Improving the cadres of the Hanmin Party”, Dong-A Ilbo (1951.9.11.)]
- Retrieved from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npda_1951_09_11_w0002_0170(2018.12.14.)]
- 상공일보 1950. 6.20일자. “진정한 민중의 벗: 김씨가 말하는 조만식씨의 투쟁사”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87951789 (검색일 2018.12.14.)
- [“A true people’s friend”, Sang-Gong Ilbo (1950.6.20.). Retrieved from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87951789 (2018.12.14.)]
- 평남공보 1950. 2. 15일자. “도민 제위에게 고향- 자력 건설에 매진하자.”
- [“Shout to the delegation - Let’s stick to the self-construction”, Pyeongnam report (1950.2.15.)]
- 평남공보 1954. 2. 15일자. “반공청년을 환영함.”
- [“Welcoming anti-communist youth”, Pyeongnam report (1954.2.15.)]
- 평남공보 1954. 7. 17일자. “제네바회의와 우리의 결의.”
- [“Geneva Conference and Our Resolutions, Pyeongnam report (1954.7.17.)]
- 평남공보 1955. 8. 15일자. “해방사 10주년 기념사.”
- [“1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Pyeongnam report (1955.8.15.)]
- 평남공보 1957. 1. 15일자. “희망이 담긴 정유년.”
- [“Hopeful Junguyeon, Pyeongnam report (1957.1.15.)]
- 평남공보 1959. 1. 15일자. “연두사- 정의필승의 신념으로 국토통일을 촉구하자.”

[“Let’s call for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 with the conviction of justice,
Pyeongnam report (1959.1.15.)]

평남공보 1959. 5. 15일자. “렬사봉공의 체행하여 간성의 영예 살리자.”

[“As we practice loyalty, Let’s make honor, Pyeongnam report (1959.5.15.)]

논문초록

해방 전·후 월남 개신교 정치인, 김병연의 애국·애족운동 연구

정교진 (서울대학교)

본 논문은 인물중점연구로서, 해방정국에 월남한 개신교인 정치인들 중 조만식 선생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역할을 했던 김병연 선생에 대해 집중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해방 전·후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있어 그 방식을 달리한 대표적인 두 지도자들(안창호, 조만식)의 사상 및 방식을 동시에 병행했던 인물을 연구한다는 점이다. 애국운동 방식이 다른 두 지도자를 계승하며 그 민족운동의 접점을 찾아갔던 김병연 선생에 대한 연구는 해방전·후 민족운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겠다.

두 번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월남 개신교(정치인)인들이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킨 주체이며 동시에 친미주의자, 친 이승만파로 정치에 편승한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병연 선생을 조명해 볼 때 그가 철저한 반공의식을 소유한 것은 맞지만 친미주의자, 친 이승만파가 아님을 확인했다. 김병연 선생은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중도주의를 표방했으며 국토분단의 책임을 미·소 양측에게 다 돌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승만 초기 정부에서 총무처장을 역임하고 이북 5도청 평안남도 도지사를 십년 넘게 봉직했지만 이승만 정부의 부조리를 지적하는데 소극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월남 개신교 정치인들에 대한 기존 평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셋째, 김병연 선생의 대북관, 통일관이 오늘날 이 시대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자주적 통일을 넘어 국제협력 및 국제공조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였고 ‘정의’와 ‘진리’ 차원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통일 제일 과업으로 내부결속을 통한 힘의 축적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김병연 선생의 ‘통일관’은 이 시대가 평화 및 통일담론을 구축하는데 있어 바른 방향을 제시해준다.

주제어 : 월남개신교 정치인, 애국애족운동, 반공주의, 대북관, 통일관